

오경의 완성과 그 신학: 신명기 34장에 나타난 모세의 죽음과 토라의 권위

민경구(에스라성경대학원)

1. 들어가는 글

성서를 분석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통시적(通時的, diachronik) 방법과 공시적(共時的, synchronik) 방법으로 나뉜다. 통시적 방법은 본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역사 비평 방법(Historisch-kritische Methode)으로 수행되는 연구 방법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공시적 방법은 시간의 흐름보다는 본문의 구조, 맥락 그리고 기능에 주목한다.

역사 비평 방법은 고대 성서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작성, 전승, 수집, 배열 및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주어진 결과물로 간주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전승과 편집 과정을 거쳤으며, 각각의 과정에 참여한 집단이 누구인지 분석하려 시도한다. 따라서 역사 비평 방법은 성서를 관찰하는 여러 단계를 종합한 표현이다. 이 비평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본문으로부터 '기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분석 단계이며, 둘째는 기원에서 오늘날과 같은 성서로 ‘완성’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통합 단계이다.

텍스트의 기원을 찾아가는 비평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원문에 가까운 가장 오래된 본문을 찾으려 시도하는 ‘본문 비평’(Textkritik). S. Kreuzer & D. Vieweger는 본문 비평 이후에 ‘언어 기술’(Sprachliche Beschreibung)을 추가하는데,¹ 이는 “본문의 구문론적-의미론적 현상과 특징을 낱말, 문장, 장절의 차원에서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 2. 원문으로 고정되기 이전에 기록이 존재했음을 밝히며, 더 나아가 현존하는 본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조명하려는 ‘문학 비평’(Literarkritik³). 3. 문학 비평을 기반으로 각 단락의 기원과 사회적 발생의 자리, 곧 ‘삶의 자리’와 ‘장르’를 밝히려는 ‘양식 비평’(Formkritik). 4. 본문으로 고정되기 이전에 구전 전승이 존재했는가를 탐구하고, 더 나아가 성서와 성서 이외의 본문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과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전승 비평’(Überlieferungskritik). 5. 중심 개념과 특징을 보이는 표현을 살핌으로 전통을 유지하고 보전하려 했던 그룹과 담지자에 대해 질문하는 ‘전통 비평’(Traditionskritik).⁴

이와 달리 현존하는 본문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는 ‘편집 비평’이 있다. 이것은 최초로 문서화에서 현존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형성 과정에 대해 관찰하고, 각 저자 그리고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대해 탐구한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은 이스라엘 역사와 사회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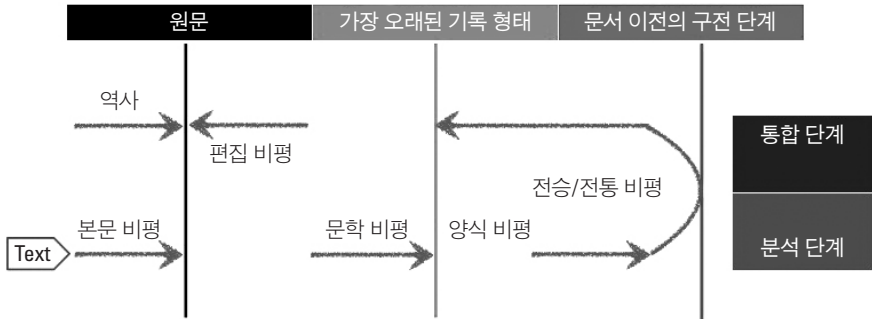
1 참조하라. S. Kreuzer & D. Vieweger,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CLC, 2011), 87 이하.

2 S. Kreuzer & D. Vieweger, 윗글, 88. 김정훈은 이것을 ‘언어 설명’으로 번역했다.

3 Literarkritik은 본래 ‘문학 비평’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신문학비평’ 이후에 ‘문학 비평’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4 참조하라. S. Kreuzer & D. Vieweger, 윗글, 49-164.

을 살펴며, 그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와 필요에 대해 질문한다.⁵ 우리는 이러한 역사 비평 방법을 O. H. Steck의 도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



필자는 신명기 34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경의 편집을 관찰할 것이다. 신명기의 일부 본문을 근거로 오경은 오랫동안 모세의 저작으로 간주되어 왔다(신 31:9,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관점도 신명기 34장을 모세의 저작으로 여기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므로, 신명기 34장이 편집되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은 없다. 신명기 34장은 오경의 마지막 본문이며 동시에 오경에 방점을 찍는 본문이므로, 학자들은 신명기 34장을 ‘오경 편집’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수행한 집단을 ‘오경 편집자’라 지칭한다.

5 참조하라. S. Kreuzer & D. Vieweger, *윗글*, 165.

6 참조하라. O. H. Steck,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10.

2. 편집 비평이란?

성서 기록은 스스로 ‘편집’의 결과임을 언급한다. 우리는 잠언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קִּיבְּרָהּ) 헤티쿠 것이니라”(잠 25:1). 잠언 25장에 기록된 ‘편집’은 구두로 전승된 것이든 필사된 기록이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 필사, 배열하는 등의 제반 행위를 포함한다.⁷ 성서는 문자를 수단으로 하여 기록된 문헌이지만, 그것은 성서가 처음부터 오늘과 같은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우리의 손에 주어졌는가 생각할 수 있다.⁸

1) 편집 비평의 과제

편집 비평의 과제는 무엇인가? 오래전에 편집 비평을 주제로 단행본을 집필한 N. Perrin은 편집 비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전통적인 자료의 수집, 배열, 편집 및 수정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구성 (composition)하는 것이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신학적 동기를 연구하는 것”⁹ 그러나 편집 비평에 대한 그의 정의는 다양한 편집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edaction Criticism”과 “Composition Criticism”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다.

편집 비평은 고고학과 같은 발굴의 결과로 성서가 본래부터 현재

7 참조하라. 김정우, 『잠언』,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678.

8 참조하라. J. Barton,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강성윤 역, (서울: 비아, 2021), 41-137.

9 N. Perrin, *What is Redaction Criticism?*, Guides to Biblical Scholarship,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1.

의 완성된 형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토판과 같이 단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편집 비평이 ‘문학 비평’을 기반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그런 점에서 편집 비평은 문학 비평을 통해 분석된 본문을 최종 형태로 종합하는 과정이다. 이에 S. Kreuzer는 편집 비평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① 어떤 본문의 최초 문서화에서부터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쳐 최종 형태까지 문헌적 진승의 역사와, ②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의도한 진승의도와 이해 가능성, 그리고 ③ 가능하다면 저자와 개정자의 역사적 장소와 문헌 사회학적 규정을 수행하고 설명해야 한다.¹¹

편집 비평의 과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편집 비평은 단편에서 하나의 완성된 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덧붙여 서로 다른 이름하에 모인 책들이 공유하는 주요 관심사를 밝힘으로써 시대적 문제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후대의 저자가 과거의 기록을 수용하는 과정(Rezeptionsvorgänge)과 방식에 대해 관찰함으로써 수용사(Rezeptionsgeschichte)을 조명한다.¹²

성서에는 ‘선포의 시대’, ‘기록의 시대’ 그리고 ‘정경의 시대’와 같은 다양한 시대가 반영되었고(시대 구분 참조), 덧붙여 B. S. Childs는 권위있는 문헌으로서 “성서”(scripture)와 교리적으로 수용된 “정경”(canon)을 구분하기도 한다.¹³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현존하는 문헌에 다양한 전역

10 참조하라. U. Becke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Ein Methoden- und Arbeitsbuch*, UTB 2664, (Tübingen: Mohr Siebeck, 2021), 92.

11 참조하라. S. Kreuzer & D. Vieweger, 윗글, 165.

12 참조하라. U. Becker, 윗글, 92.

13 B.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58.

사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1. 현존하는 본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가 본문을 최초로 작성한 자라면 우리는 그를 ‘저자’로 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능동적 역할과 수동적 역할이 나뉜다. 저자가 자신에게 — 구전 또는 문서로 — 전승되는 이야기를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승이 ‘구전’일 경우에 그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기록하는 ‘저자’일 수 있지만, 비록 전승이 단편의 형태이지만 기록된 ‘문헌’일 경우에 그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모으는 ‘저자’일 수 있다. 추가로 여기에 언급된 ‘능동적’과 ‘수동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2. 첫 번째 질문과 연결하여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최초로 작성한 자’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단편에 완성했는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제는 수월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2차 혹은 현재의 본문으로 완성되기까지 더 존재할 3차와 n차 저자를 고려해야 한다. 추가로 그는 1차 저자와 유사한 ‘저자’인가, 아니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편집자/구성자 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아래 ‘편집 방식’을 보라).

3. 현존하는 본문을 현위치로 배열한 인물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에 구약 연구는 단행본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면, 이제는 아직까지는 제한된 본문이긴 하지만 각 단행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단행본을 현 위치로 배열함으로써 보여주려는 신학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K. Schmid는 구약의 문헌사가 “정경적인 형성 과정을 거친 하나의 응집력 있는 전체를 구성”¹⁴하는 편집과 관련되어 있음을 피력했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편집자가 활동한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 개

14 K. Schmid,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 이용중 역, (서울: CLC, 2018) 406.

별적으로 존재하던 본문이 편집 과정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발전했다면, 이 편집이 발생한 시대는 언제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서가 시대와 동떨어진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저자/ 편집자는 자신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신학적 질문에 응답하고자 했으며, 우리는 편집 시대에 질문함으로써 본문 이면에 존재하는 편집자의 ‘의도와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자는 종종 편집자가 활동한 시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편집은 결코 어느 ‘한 시대에’ 그리고 ‘단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최종 형태로 편집한 시대의 “상한선”(terminus a quo)과 “하한선”(terminus ad quem)에 대해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본문의 시대 구분

우리는 성서에서 ‘선포의 시대’와 ‘기록의 시대’ 그리고 ‘정경의 시대’가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 포로기 이전 예언자는 아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 그것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 예언자의 선포가 ‘기록’으로 모이게 된 것은 선포 이후의 시기이지, 선포와 동시대가 아니다.

정경화 과정은 정경에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못한 것 사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고대에는 다양한 기록이 존재했는데,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다양한 기록 존재했었음을 역대기에서 관찰할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을 알고 있으며(대상 29:29), 그것을 참조하여 역대기를 기술한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가 보았던 기록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잊혀지게 되었다. 정경으로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못한 것에는 권위의 차이가 생겨나며, 점차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잊혀지게 되었다.

시대 구분은 예언서 이해에도 중요하다. 우리는 포로기 이전 예언

자가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야웨의 예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의 선포는 ‘거짓 예언’처럼 거부되기도 했으므로(렘 26:8), 사람들은 그들의 선포를 기록할 필요성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기록된 예언의 일부는 훼손되었다(렘 36장). 포로기 이후에는 예언자의 ‘선포’와 ‘기록’을 동시대로 볼 수 있는 ‘문서로 선포하는 예언자’(Schriftprophet)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선포 시대’와 ‘기록 시대’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일부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서 주전 760년 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지만, 그의 선포는 포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이와 달리 호세아는 아모스보다 후대인 주전 750년 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이었지만, 그의 선포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후에, 즉 아모스보다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¹⁶ 따라서 우리는 성서 본문에 다양한 시대가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

3. 편집 비평

1) 편집 방식

성서가 편집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편집의 방식이다. 고대 전통이 문서화로 진행되는 과정을 B. S. Childs는 “선택(selecting), 수집(collecting), 정리(ordering)”¹⁷라는 용어로 요약한다. 이밖에도 U. Becker는 편집층의

15 참조하라. J. Jeremias, “문서 예언의 수수께끼”, in 『구약신학 연구동향』, ZAW 125 회 기념논문, 민경구 역, (서울: CLC, 2016), 119-120.

16 참조하라. J. Jeremias, 율글, 93-117, 특별히 119.

17 B. S. Childs, 율글, 59.

기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서술한다.¹⁸

“(편집자의) 보충 본문은 어느 위치에 추가되었는가? 그것은 본문 단위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여 본문 단위를 새롭게 도입하는가? 보충 본문은 본문 단위에 부가되었는가? 보충 본문은 기존 문헌 단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설명(erläuternd), 정밀(präzisierend), 수정(korrigierend) 또는 구조를 구성(strukturierend).”

“(편집자의) 보충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었는가? 어떻게 기존 문헌 단위를 구성하는가? 그 편집층이 기존 문헌 단위의 의미를 교정(Korrektur)하거나 강화(Bestätigung)하거나 수정(Modifikation)하는가?”

문서의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는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어왔다. U. Becker는 중요한 여러 개념을 통해 구약성서 편집의 방식을 설명한다. “편집”(Redaktion)은 현대 성서학 또는 문헌학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으로 “문서 전송의 틀에서 주어진 본문을 개정(Bearbeitung)하고, 새로운 전체로 재구성(Umgestaltung)하는 작업”¹⁹이다. 이런 점에서 ‘편집’은 다양한 문서 편집 작업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개정”(Bearbeitung)이란 일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본문 단락을 주어진 기본 문서에 삽입하는 것”²⁰을 가리킨다. “구성”(Komposition)이란 “구두 또는 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단락 또는 본문들을 더 큰 본문 맥락의 틀로 엮어내는 작업(Zusammenstellung)”²¹을 뜻하는데, 이

18 U. Becker, *윗글*(2021),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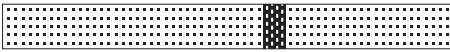
19 U. Becker, *윗글*, 101.

20 참조하라. U. Becker, *윗글*,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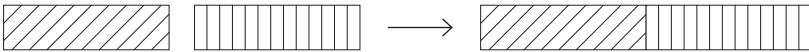
21 U. Becker, *윗글*, 102.

는 “단순 합성”²²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편찬”(Kompilation)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기본 본문(Grundtexte), 자료(Quellen), 문서(Urkunden)를 편집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내용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통합하려는 작업을 가리킨다. “이어쓰기”(Fortschreibung)란 기존 본문을 현재화하여 첨가함으로써 확장하는 편집 행위를 의미한다. 김정훈은 이러한 개념들과 H. Utzschneider & S. A. Nitsche²³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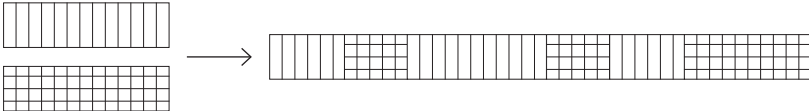
(1) 개정(창 19:37-38)



(2) 구성(창 1-2)



(3) 편찬(창 6:5-8:22)



(4) 이어쓰기(암 1:3-2:16)



22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98.

23 H. Utzschneider & S. A. Nitsche, *Arbeitsbuch. Literaturwissenschaftliche Bibelauslegungen Testaments. Eine Methodenlehre zur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21), 299-300.

24 김정훈, *윗글*, 398-402.

위의 서술은 개별적인 요소를 묘사하지만, 우리는 편집의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편집 비평 방법

편집 비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편집 비평은 현존하는 본문을 문학 비평(Literarkritik)으로 세분화하여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 본문 연구자는 문학 비평을 통해 각각의 문헌이 수집되고 배열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독자적으로 존재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독립된 본문이 어떠한 편집 과정을 통해 현재의 형태로 완성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동반한다. 따라서 편집 비평의 출발은 문학 비평과 결부되었다. 하지만 문학 비평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본문 단락에 국한하여 관찰한다’는 점에서 편집 비평과는 구별된다. 편집 비평은 선택된 한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연관성이 드러난 성서 본문을 넘나들며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양식 비평을 기반으로 한다.

편집 비평은 양식 비평(Formkritik)에서 관찰되는 관용구(Redewendung)에 주목한다. 양식 비평에서 관찰되는 관용구는 주어진 본문과 다른 본문과의 문학적 연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편집 비평은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비평 방법이므로, 선행하는 비평 방법에서 인지된 중요한 관찰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다. 편집 비평은 주어진 본문과 문학적으로 연결된 다른 본문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밝힌다. 편집자는 자신보다 앞서 존재하는 본문을 수용, 수정, 비평 또는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신학을 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오경 편집자의 신학: 신명기 34장

마지막으로 필자는 성서 본문을 선별하여 편집 비평의 실례를 제시하고자 하며, 특별히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신명기 34장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신명기 34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뉜다. 첫째로 모세가 ‘느보 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다(1-5절). 둘째로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6-8절). 6절은 1-5절과 연결된 구절로 간주되기도 하지만,²⁵ 6절은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서술하여 모세의 특별함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7-8절과 연결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셋째로 갑작스럽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는 기록이다(9절). 5절이 이미 모세의 죽음을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은 시간을 역행하여 다시 모세의 행동을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모세의 비문’(Epitaph)이라 불리는 소단락이다(10-12절). 모세의 행동을 묘사하는 9절을 제외한다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으로 보인다.

1) 1-5절

1절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갔다는 보도로 시작하며,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리고 맞은 편에 위치한 ‘비스가 산꼭대기’라고 언급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관용구’를 통해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 참조하라. F. G. López, “Deut 34, Dtr History and the Pentateuch”, in: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ed. by F. García Martínez, and C. J. Labuschagne, VT.S 53(1994), 47-61. 52-53.

신 34:1, 4b	신 32:49	신 3:27	민 27:12-13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u>느보 산</u> 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u>비스가</u>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u>아바림</u> 산에 올라가 <u>느보 산</u> 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u>비스가</u>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u>아바림</u>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명기 34장은 제사장 문서(P^s)의 종결 부분에 대한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사장 문서가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종결부를 민수기 이전의 최소치로 잡느냐(E. Otto, T. Pola, E. Zenger, Ch. Nihan), 신명기 또는 여호수아까지 최대치로 잡느냐(J. Wellhausen, K. Elliger, Ch. Frevel, N. Lohfink)에 대해서는 논쟁중이기 때문이다.

J. Wellhausen을 비롯하여 신명기의 제사장 편집을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점은 민수기 27:12가 신명기 32:48에 수용되었고,²⁶ 이후에 그것이 다시 신명기 34:1a, 7-9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느보 산’, 특별히 ‘비스가 산 꼭대기’라는 곳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묘사하지만,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평행 본문은 없다. 신명기 32:49와는 ‘느보 산’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아바림 산’을 추가로 기록하며, 신명기 3:27과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느보 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와 달

26 J.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Georg Reimer, 1899), 113.

리 독자적으로 본다면 신명기 34:1과 민수기 27:12-13의 장소 연결성을 찾기는 어렵다. 추가로 신명기 34:1은 ‘비스가 산 꼭대기’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는 부분에서 신명기 3:27과 연결되며, ‘명령과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신명기 32장과 유사성이 관찰된다(신 32:48-52// 신 34:1-5).²⁷ 따라서 신명기 34장을 민수기 27장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약화되며, 오히려 신명기 3장과 편집적 시각을 공유한다.

신 32:48-52		신 34:1-5	
49절	עָלָה	וַיַּעַל	1절
49절	רָאָה	וַיִּרְאֶהוּ	1절
50절	מָת	וַיָּמָת	5절

2) 6-8절

6-9절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온다. 6절은 가장 먼저 모세의 죽음을 선언한다. 본문은 모세가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묘사하는데, 여기에는 3.m.s의 PK²⁸-1 형태로 기록되었다(וַיִּקְבְּרוּ, 바이크보르). 이것은 개역개정에서 수동태로 번역되었지만, Qal 동사의 ‘주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본문 비평 장치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LXX를 근거로 (ἐθαψαν) 동사를 3.m.pl(וַיִּקְבְּרוּ)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지만, 이 제안은

27 참조하라. R. Lux, “Der Tod des Mose al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Überlegungen zu einer literaturwissenschaftlichen und theologischen Interpretation von Deuteronomium 32, 48-52 und 34”, *ZThK* 84(1987), 401; K. Min, *Geist und Tora. Zum Verhältnis von Geistbegabung und Toratreue in der Schriftgelehrtentheologie des Pentateuch und der Prophetenbücher*, EHS 943,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4), 157.

28 Präformativkonjugation(미완료형)의 약어이다.

뒤이어 나오는 모세의 매장지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선언과 충돌된다. 오히려 동사의 주어는 아웨로 이해되며,²⁹ 더 나아가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유골(비교하라. 창 50:25-26) 혹은 의복(비교하라. 왕하 2:12)을 소유함으로써 독단적으로 모세의 계승자라고 주장³⁰하는 것과 모세 숭배를³¹ 방지한다.

이어서 7절에는 모세가 120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서술되었다. 여기에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선언이 관찰된다. 나이가 많아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성서의 위대한 인물과 비교하면(창 27:1; 왕상 1:1), 7절은 분명 모세의 특별함을 서술한다. ‘모세의 강건함’을 묘사하는 문구는 120세가 되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신 31:2)는 신명기 31장을 수정한다.³²

신 34: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u>백이십 세</u> 였으나 <u>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u>
신 31:2*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u>백이십 세</u> 라 내가 <u>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u>

따라서 신명기 34:7이 31:2보다 후대 본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추가로 우리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20세라는 문구는 그 이유가 창세기 6:3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창세기 6:3에는 아

29 참조하라.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405.

30 참조하라. D. L. Christensen, 『신명기 21:10-34:12』, WBC,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7), 680.

31 참조하라. 주원준, 『신명기』, (서울: 바오로딸, 2016), 522.

32 참조하라. K. Min, 윗글, 163.

웨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서술되었고, 사람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K. Schmid는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죽는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수명이 창세기 6:3에 명시된 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적절하게 피력한다.³³

모세 죽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와 대조되는 것이 “너희 때문에”라는 서술이다(신 1:37; 3:26). 우리는 위에서 신명기 34:1-6이 3:27과 평행하다는 것을 관찰했다. 신명기 3:23-29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로 “너희 때문에”(עַלְפִּיכֶם, 레마안כם), 즉 공동의 책임³⁴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1-5절과 6-8절에서 모세 죽음의 이유가 상이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여 신명기 3:28에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게하라”는 말과 함께 여호수아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31:6-7에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신명기 34:6-8은 3:23-29; 31:1-8 보다 후대 본문으로 평가된다.

3) 9절

신명기 34:9는 민수기 27:18-23과 평행한 본문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두 본문에는 ① ‘여호수아에게 있는 영’, ② ‘모세의 안수’, ③ ‘공동체의 인정’ 그리고 ④ ‘야웨의 말에 순종’이 공통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33 참조하라. K. Schmid, “Der Pentateuchredaktor. Beobachtungen zum theologischen Profil des Toraschluss in Dtn 34”, in: *Les dernières rédactions du Pentateuque, de l'Hexateuque et de l'Ennéateuque*, BEThL 203(2007), 183-197. 192.

34 참조하라. R. Achenbach, *Die Vollendung der Tora.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Numeribuches im Kontext von Hexateuch und Pentateuch*, BZAR 3,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3), 319.

민수기 27:18-23	신명기 34:9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u>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u>	모세가 <u>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u> 이스라엘 자손이 <u>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u>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19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u>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u> 하였더라	

그러나 두 본문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관찰된다. 이에 대해 W. Vogels는 민수기 27장에는 “영 → 안수 → 공동체의 수용” 순서로 나온다면, 신명기 34장에는 “안수 → 영 → 공동체의 수용” 순서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며³⁵ 두 본문의 차이를 적절하게 지적했다. 따라서 본문은 개별적 서술에서는 공통점은 관찰되지만, 행위의 인과 관계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특별히 손을 얹는 ‘안수’가 의식 행위를 의미한다면(레 1:4; 3:2, 8; 민 8:12), 신명기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 부음’을 강조한다. 9절은 한편으로 영부음을 모세의 안수와 연결시켜 모세의 권위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6-8절과 맥을 같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선언 이후에 모세의 행위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6-8절과 분리된다.

우리는 9장에 기록된 영부음과 유사한 현상을 다윗 이야기(삼상 16:13)와 이사야서(사 61:1)에서 관찰할 수 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은 ‘기름 부음’과 ‘영 부음’을 인과 관계(יָצַק, 야안)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눈

35 W. Vogels, “The Spirit in Joshua and the laying on of hands by Moses”, *LTP* 38(1982), 3-7. 3.

에 띈다.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4장에서 중요한 두 번째 차이는 ‘영’에 대한 언급에서 보인다. 민수기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영’을 서술한다면, 신명기는 그것을 “지혜의 영”이라고 명시한다. H. W. Wolff는 민수기 27:18과 신명기 34:9이 모두 제사장 문서임을 토대로 민수기 27장의 ‘영’을 ‘지혜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³⁶ 오히려 두 본문에는 상당한 신학적 차이가 부각될 뿐이다.

4) 10-12절

10-12절은 오경에서 모세에 대해 언급하는 마지막 본문으로 ‘모세의 비문’(Epitaph)이라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다. 특별히 10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서술이 관찰된다. 첫째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בְּמוֹשֶׁה ... כְּנִבְיָא עוֹד)로, 웨로-캄 나비 오드 ... 케 모세)는 언급이다. 본문은 모세가 ‘예언자’(נְבִיא, 나비)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예언자를 기능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모세를 예언자로 서술하는 것이 신명기 18:15, 18에서 관찰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신명기 34:10과 비교해야 한다.

신 18:18	כְּמוֹדַ וְנִתְחִי דְבַרְי בְּפִיו וְדַבֵּר אֲלֵיהֶם אֶת כָּל-אֲשֶׁר אֶצְוֶנּוּ נְבִיא אֲקִים לָהֶם מִקִּרְבֵּי אַחֵיהֶם
신 34:10	נְבִיא עוֹד בְּיִשְׂרָאֵל כְּמוֹשֶׁה אֲשֶׁר יִדְעוּ יְהוָה פָּנִים אֶל-פָּנִים וְלֹא-קָם

신명기 34:10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בְּמוֹשֶׁה ... כְּנִבְיָא עוֹד)고 서술되었다면, 신명기 18:18에는 “내가

36 참조하라. H. W.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Kaiser, ⁷2002), 65.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겠다”(נָבִיא אֲקִים … כְּמֹשֶׁה, 나비 아킴 … 카모카)고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일으키겠다’(אָקַם, 콤)는 약속과 ‘일어나지 못했다’(לֹא-קָם, 로-콤)는 선언 사이에 갈등이 보인다. 신명기 34장은 18장을 부정하며(לֹא, 로) 내용을 수정한다.³⁷ 덧붙여 우리는 신명기 18:18이 이후의 문서 예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1:9와 관련성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신 18:18*	렘 1:9*
וְנִתְּנִי דְבָרֵי בְּפִיו	וְנִתְּנִי דְבָרֵי בְּפִיךָ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신명기 18:18의 동사가 야웨를 주어로 기록된 AK³⁸-1로 약속을 묘사한다면, 예레미야 1:9의 동사는 야웨를 주어로 하는 AK 형태로 기록되었으므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³⁹ 그러나 신명기 34:10에는 오히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해석에 긴장을 가져온다. 무엇보다 예레미야가 소명기사를 통해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저자가 신명기 34:10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신명기 34:10은 시기적으로 예레미야 소명기사보다 후대로 평가된다.

10절에서 부각되는 두 번째 표현은 모세가 야웨와 ‘대면하

37 참조하라. E. Otto, *Deuteronomium 23,16-34,12*, HThKAT, (Freiburg im Br.: Herder, 2017), 2284.

38 Affirmativkonjugation(완료형)의 약어이다.

39 W. Thiel, *윗글*(1973), 67-68.

던'(פְּנִים אֶל-פְּנִים, 파님 엘-파님) 인물이라는 점이다. 오경에는 모세와 야웨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3:11에는 야웨가 모세와 '대면하여'(פְּנִים אֶל-פְּנִים)라고 언급하며, 민수기 12:8에는 '입에서 입으로'(פֶּה אֶל-פֶּה, 페 엘-페) 명백히 말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관용구는 모세가 성서의 모든 인물을 뛰어넘는 비교불가의 인물임을 선언한다. 모세를 가장 뛰어난 인물로 묘사하는 것은 앞서 살핀 신명기 34:6-8에서도 관찰된다.

우리는 상술한 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HexRed ⁴⁰	PentRed ⁴¹	nach PentRed	전제된 본문
1-5절			신 3:24-28
	6-8절		신 31:2; 창 6:3
		9절	민 27:18-23
	10-12절		신 18:18

5. 오경 편집

1) 모세의 죽음과 오경의 완성

신명기 34:10-12는 모세의 비문으로서 오경 형태의 마침표를 찍는다. 그런 이유로 Ch. Dohmen이 “오경의 탄생으로서 모세의 죽음”(Der Tod des Mose als Geburt des Pentateuch)⁴²이라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다. 이 비

40 HexRed은 Hexateuch-Redaktion의 약어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E. Otto, 윗글(2002), 7을 보라.

41 PentRed은 Pentateuch-Redaktion의 약어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E. Otto, 윗글(2002), 7을 보라.

42 C. Dohmen, & M. Oeming (Eds.), *Biblischer Kanon. warum und wozu? Eine Kanontheologie*, QD 137, (Freiburg im Br.: Herder, 1992), 54.

문은 오경의 형태를 완성하는 종결구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오경 편집’(Pentateuchredaktion)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오경의 ‘최종 편집’(Endredaktion)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K. Schmid는 이 표현이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원 오경편집들(*Proto-Pentateuchredaktionen*)⁴³로 이해해야 함을 피력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신명기 34장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고, 적어도 2개의 서로 다른 편집층이 관찰된다. 1-5절은 신명기 3:24-29 그리고 31:1-8과 연결되지만, 그것은 모세의 권위를 보여주는 본문에서(6-8:10-12절) 수정되고 있다. 따라서 34:1-5는 오경편집 이전의 편집층이 된다.

오경 편집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모세는 오경 편집자를 통해 가장 권위있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족장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언급하고(창 49:29-31), 민수기는 제사장의 조상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호르산에 올라갔음을 보도한다(민 20:26-28). 이와 달리 오경 편집자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를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한다. 오경 편집자는 앞서 서술된 여러 기록들(신 18:18; 31:2)에서 보이는 평범한 모세의 모습을 수정함으로써 모세를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한다(7, 10절). 이처럼 오경 편집자가 모세의 절대적 위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모세의 권위하에 모인 토라의 권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⁴⁴

둘째, 모세 이후의 지도자들은 모세를 따르는 자들로 기록되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상이한 집단에게 나눈다. 재판

43 K. Schmid, *윗글*(2007), 183.

44 참조하라.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82.

하는 역할을 맡을 자로 ‘재판관’을 세웠으며(신 1:9-17), 토라를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에게 넘겼고(신 31:9-13),⁴⁵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신 34:9).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구도 모세의 역할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오직 모세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들로 등장하며, 모세의 권위로 집대성 된 토라를 따르는 자들일 뿐이다.⁴⁶

셋째, 오경 편집은 모세를 “최고 예언자”(Erzprophet)⁴⁷으로 선언한다(신 34:10).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중요한 주제이다. 신명기 18:18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운다”는 야웨의 약속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이후 예언서에서 중요하게 나온다(렘 1:9; 수 1:8 등). 그러나 신명기 34:10은 신명기 18:18을 수정하여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등장을 거부하며, 모세의 특별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모세를 모든 토라를 근간으로 하는 예언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한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에 이스라엘의 포로와 심지어 포로 귀환까지 언급하여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꿰뚫는 위대한 예언자로 묘사되었다(신 30:1-5). 이와 달리 이후에 역사의 한 시점에 등장하여 활동하는 예언자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모세를 따르는’ 인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해는 예언자들이 모세의 권위하에 완성된 율법을 해석하는 자, 환언하면 ‘율법 해석자’⁴⁸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경 편집자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의해 집대성된 토라를 당대에 해석하는 자들이며, 그들을 통

45 참조하라.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53(2014), 256-279.

46 참조하라. E. Otto, 윗글(2000), 185.

47 참조하라. E. Otto, 윗글(2017), 2284; K. Schmid, 윗글(2007), 188.

48 참조하라. E. Otto, 윗글(2017), 2284; 민경구,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서울: IVP, 2024), 18.

해 토라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와 동등하게 되었다.⁴⁹

2) 오경 편집: 결과와 연대

우리는 신명기 34장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는 성서 형성 과정이다. J. Wellhausen의 가설이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이 바벨론 창조 설화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오경의 최종 본문인 신명기 34장은 포로기에 집대성된 제사장 문서(P^o)의 형성을 전제한다. 물론 제사장 문서의 마지막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그것이 포로기 또는 그 직후에 형성되었다는 점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죽음이 창세기 6장과 연결된다는 점은 신명기 34장의 저자가 창세기 본문을 알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둘째, 신명기 34장 저자가 신명기 역사서의 일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서 신명기 역사서의 형성에 대해 Göttingen 학파 또는 Harvard 학파 사이에 논쟁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포로 시기에 신명기 역사서의 골격이 형성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⁵⁰ 따라서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은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포로기에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이야기의 흐름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사장 그룹'과 ,신명기 그룹'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한' 저자 또는 집단의 편집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오경 편집자는 제사장 문서(P^o와 P^s)뿐만 아니라, 신명기

49 참조하라. E. Otto, *윗글*(2000), 182.

50 이삭은 '사울 왕위 등극 역사'(HSR)와 '다윗 왕위 등극 역사'(HDR)의 일부가 주전 10세기 말부터 문서로 기록되었고, 유대와 베냐민에서 각각 전승되었던 것들이 포로기에 편집되었을 것을 주장한다. 이삭, "사무엘상 9-15장과 사무엘상 31-사무엘하 4장의 사울과 다윗 왕위 등극 역사 편집사 재평가: 최신 학계 동향과 편집사 새 모델 제안", 『신학논단』 115(2024), 163-209. 특별히 188-203.

(DtrD)와 땅점유 이야기(DtrL)의 연결을 알고 있었고, 제사장 문서에서부터 땅점유까지 이르는 이야기의 연결을 전제한다.

셋째, 우리는 예언서의 형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신명기 34:10은 공직자법(신 16:18-18:22)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예언자'에 대한 약속을 수정한다(신 18:18). 이와 달리 소위 문서 예언자는 저자를 통해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묘사되었다(수 1:8; 렘 1:9; 사 51:16; 59:21). 그런 점에서 예언서의 저자는 토라를 해석하여 예언자를 ,모세와 같은 예언자', 즉 약속된 자로 제시한다. 신명기 34:10이 신명기 18:18을 수정한다는 점에서 오경 편집자는 예언서 기록의 일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오경 편집 이전에 예언서의 ,정경화'가 발행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오경 편집의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오경 편집자는 적어도 창세기부터 열왕기서까지 이르는 이야기 단락을 알고 있었다. 여기에 오경 편집자는 신명기 34장을 추가함으로써 여호수아서로 시작하는 역사서술로부터 오경을 분리시킨다. 이로써 오경이 완성된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신명기 34장의 편집 연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전술한 것처럼 연대를 명확히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편집 연대의 상한선(*terminus a quo*)과 하한선(*terminus ad quem*)을 추정할 뿐이다. 필자는 위에서 오경 편집이 제사장 문서와 신명기의 연결을 전제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는 오경 편집이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가리킨다. 오경의 최종 편집 연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E. Zenger & C. Frevel의 설명을 기반으로 오경 편집의 시기를 주

전 450-350년으로 추정하는 근거를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⁵¹

첫째, 오경에는 주전 4세기 후반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몰락의 징후가 보이지 않으며, 헬레니즘의 영향이나 그로 인한 갈등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최근 비판을 받고 있다. K. Schmid는 민수기 24:14-24를 묵시적 상황과 연결시키며, 특히 민수기 24:24를 알렉산더와 페르시아의 전투로 이해하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한다.⁵² 둘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예배적/종교적 단절은 헬레니즘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사마리아의 분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진행됐다. 주전 5세기 중반부터 아웨 성소가 그리심산(Garizim)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⁵³ 이것은 예루살렘의 제 2성전과 긴장 관계에 있었으며(신 27:4), 주전 4세기 후반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사마리아는 오경을 수용했거나 또는 사마리아와 유대 공동체가 모두 오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셋째, 오경의 헬라이어 번역이다. 이것은 적어도 주전 3세기 중반에 완성되었다. 이는 토라가 그 사이에 애굽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권위있는 문헌으로 수용되었음을 가리킨다. 넷째, 에스라/느헤미야에서 “모세의 율법”은 규범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참조: 스 3:2; 느 8: 10:30; 13:1). 느헤미야 10:29-32 그리고 13:1은 출애굽기-신명기를 해석하는데, 이는 저자가 오경의 일

51 E. Zenger는 개론서에서(8판, 2012년) 오경의 최종 편집을 주전 450-400까지로 서술하지만, E. Zenger의 개론서를 이어받아 편찬하는 C. Frevel은 개론서에서(9판, 2016) 오경의 최종 편집을 주전 450-350년으로 수정한다(141 참조). 이와 달리 오경의 주전 3세기 편집에 대해 참조하라. E. Otto, „Jerusalem und Garizim im nachexilischen Deuteronomium und die Funktion der Lade als rechtshermeneutischer Indikator für JHWHs Erwählung des einen Ortes“, *ZAR* 28(2022), 111-145. 특별히 111; K. Schmid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E. Zenger의 근거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K. Schmid, “누가 오경을 기록했는가?”, 이은우 역, *구약논단* 86(2022), 277-301.

52 참조하라. K. Schmid, “누가 오경을 기록했는가?”, 289-290.

53 신명기 27:4의 그리심산을 예발산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참조하라. 이상원,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에서의 제의중앙화규정. 신명기역사서 이후 역사서에서의 제의”, 『구약논단』 88(2023), 182-215. 특별히 204 각주 41.

부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주전 400년경으로 추정되는 신명기의 최종 편집이 오경(창세기-신명기)을 ‘전기 예언서’(여호수아-열왕기하)와 구분하려는 편집적 의도를 담고 있다면, 오경의 최종 구성의 완료 시점은 주전 4세기 초로 평가되며, 적어도 이 시점 오경 형성 과정은 대부분 완료되었을 것이다.⁵⁴

6. 나가는 글

편집 비평은 역사 비평 방법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을 담당하지만, 선행 연구를 토대로 연구가 수행되는 최종 단계의 방법인 관계로 다른 비평 원칙보다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비평은 현재 형태로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에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비평 방법은 역사 비평의 다른 방법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본문 비평부터 전통/전승 비평까지는 분석하는 과정이라면, 편집 비평은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어진 본문에 집중하여 관찰-연구하는 본문 비평과 문학 비평과 달리 편집 비평은 다양한 본문을 연결시킴으로써 성서 편집자의 큰 흐름을 밝힌다는 점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

‘편집’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 본문에서 편집은 개정(Bearbeitung), 구성(Komposition), 편찬(Kompilation), 이어쓰기(Fortschreibung)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본문의 편집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 책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책에서 동일한 편집층이 관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시대와 문헌의 신학이라는 거대 담론에 주목하게 한다.

54 E.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2016), 141.

필자는 편집 비평의 한 예시로 신명기 34장을 관찰했다. 신명기 마지막 본문은 오경의 방점을 찍는 본문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신명기 34장은 적어도 두 차례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고, 여기에는 모세의 특별함을 부각시키는 표현이 빈번하게 관찰된다(신 34:6-8; 10-12). 모세의 특별함과 권위는 선행하는 모세에 대한 기록을 수정함으로써 드러난다. 첫째, 오경 편집자는 신명기 31:2를 수정하여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묘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이유에 대해 창세기 6장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둘째, 오경 편집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겠다'(신 18:18)를 수정하여,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못했다'(신 34:10)고 선언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모세의 절대적 위치를 부각시켰다. 모세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이 따라야 할 존재로 묘사되었고, 이로써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모세의 권위는 그의 죽음과 함께 완성되는 토라의 권위와 연결된다. 모세의 권위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선언을 통해 완성된 토라에 위임됨으로써 곧 토라의 권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로써 모세 이후에 중요 인물은 토라의 해석자로 등장한다.

참고문헌

- 김정우, 『잠언』,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53(2014), 256-279.
- 민경구,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서울: IVP, 2024.
- 이삭, “사무엘상 9-15장과 사무엘상 31-사무엘하 4장의 사울과 다윗 왕위 등극

- 역사 편집사 재평가: 최신 학계 동향과 편집사 새 모델 제안”, 『신학논단』 115(2024), 163-209.
- 이상원,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 이후 이스라엘에서의 제의중앙화규정. 신명기역사 서 이후 역사서에서의 제의”, 『구약논단』 88(2023), 182-215.
- 주원준, 『신명기』, 서울: 바오로딸, 2016.
- Achenbach, R., *Die Vollendung der Tora.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des Numeribuches im Kontext von Hexateuch und Pentateuch*, BZAR 3,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03.
- Barton, J., 『성서의 형성.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강성윤 역, 서울: 비아, 2021.
- Becker, U.,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Ein Methoden- und Arbeitsbuch*, UTB 2664, Tübingen: Mohr Siebeck, 2021.
- Childs, B. 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Christensen, D. L., 『신명기 21:10-34:12』, WBC,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7.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ohmen, C. & Oeming, M. (Eds.), *Biblischer Kanon. warum und wozu? Eine Kanontheologie*, QD 137, Freiburg im Br.: Herder, 1992.
- Gertz J. C. & Schmid, K.,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315, Berlin: de Gruyter, 2002.
- Jeremias, J., “문서 예언의 수수께끼”, in 『구약신학 연구동향』, ZAW 125회 기념논문, 민경구 역, (서울: CLC, 2016), 94-131.
- Kreuzer, S. & Vieweger, D.,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역, 서울: CLC, 2011.
- López, F. G., “Deut 34, Dtr History and the Pentateuch”, in: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ed. by F. García Martínez, and C. J. Labuschagne, VT.S 53(1994), 47-61.
- Lux, R., “Der Tod des Mose al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Überlegungen zu einer literaturwissenschaftlichen und theologischen Interpretation von Deuteronomium 32,48-52 und 34”, ZThK 84(1987), 395-425.
- Min, K., *Geist und Tora. Zum Verhältnis von Geistbegabung und Toratreue in der Schriftgelehrtentheologie des Pentateuch und der Prophetenbücher*, EHS 943,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2014.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 Deuteronomiumrahmens*, FA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Otto, E., *Deuteronomium 23,16-34,12*, HThKAT, Freiburg im Br.: Herder, 2017.
- Otto, E., „Jerusalem und Garizim im nachexilischen Deuteronomium und die Funktion der Lade als rechtshermeneutischer Indikator für JHWHs Erwählung des einen Ortes“, ZAR 28(2022), 111-145.
- Perrin, N., *What is Redaction Criticism?, Guides to Biblical Scholarship*,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 Römer, T., 『신명기 역사서 연구』, 김경식 역, 서울: CLC, 2020.
- Schmid, K., “Der Pentateuchredaktor. Beobachtungen zum theologischen Profil des Toraschluss in Dtn 34”, in: *Les dernières rédactions du Pentateuque, de l'Hexateuque et de l'Ennéateuque*, BEThL 203(2007), 183-197.
- Schmid, K., 『고대 근동과 구약 문헌사』, 이용중 역, 서울: CLC, 2018.
- Schmid, K., “누가 오경을 기록했는가?”, 이은우 역, 『구약논단』 86(2022), 277-301.
- Steck, O. H., *Exegese des Alten Testaments. Leitfaden der Methodik. Ein Arbeitsbuch für Proseminare, Seminare und Vorles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Thiel, W.,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1-25*, WMANT 4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3.
- Utzschneider, H. & Nitsche, S. A., *Arbeitsbuch. Literaturwissenschaftliche Bibelauslegungen Testaments. Eine Methodenlehre zur Exegese des Alten Testamen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21.
- Vogels, W. “The Spirit in Joshua and the laying on of hands by Moses”, LTP 38(1982), 3-7.
- Wellhausen, J.,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und der historis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Berlin: Georg Reimer, 1899.
- Wolf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Gütersloh: Kaiser, ⁷2002.
- Zenger, E.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Th 1.1,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⁸2012; ⁹2016.

검색어

신명기 34, 모세, 죽음, 권위, 토라, 오경편집

[ABSTRACT]

Die Endredaktion des Pentateuch und seine Theologie: Der Tod des Mose und die Autorität der Tora in Deuteronomium 34

Kyunggoo Min
Ezra Bible Institute

Die Redaktionskritik bildet zwar ein zentrales Element der historisch-kritischen Methode, doch da sie auf den Resultaten vorausgehender Forschungsschritte aufbaut und somit als letzter Analyseschritt gilt, erlangte sie erst vergleichsweise spät größere Aufmerksamkeit. Aktuell stößt sie jedoch auf wachsendes Interesse, da sie den Prozess der finalen Gestaltbildung des Textes sichtbar macht. Deshalb unterscheidet sich ihre Methodik grundlegend von anderen historisch-kritischen Methoden, denn während Text- und Traditions- bzw. Überlieferungskritik vor allem analytisch vorgehen, zeigt die Redaktionskritik den integrativen Charakter des Textes auf.

„Redaktion“ ist ein äußerst umfassender Begriff, denn sie kann in recht unterschiedlichen Formen erfolgen – wie Bearbeitung, Komposition, Kompilation oder Fortschreibung. Die Redaktion eines Textes vollzieht sich also nicht auf eine einzige Weise, sondern auf hochkomplexe Art und Weise. Während die Text- und Literarkritik sich auf die genaue Analyse des gegebenen Textes konzentrieren, ist es die Stärke der Redaktionskritik, dass sie durch die Verbindung verschiedener Texte die übergreifenden Linien des redaktionellen Wirkens sichtbar macht. Dies kann sich

www.kci.go.kr

einerseits nur innerhalb eines einzelnen Buches ereignen, doch da häufig dieselbe redaktionelle Schicht in verschiedenen Büchern zu beobachten ist, richtet sich die Aufmerksamkeit andererseits auf den größeren Diskurs von Epoche und Theologie der betreffenden Schriften.

Der Verfasser hat als Beispiel für die redaktionskritische Methode Deuteronomium 34 untersucht. Dies letzte Buchkapitel stand aufgrund seiner Funktion als Schlusspunkt des Pentateuchs seit Langem im Forschungsfokus, denn es wurde mindestens zweimal redaktionell überarbeitet, wobei die Endredaktion des Pentateuchs die Einzigartigkeit des Mose besonders hervorhob (Dtn 34,6-8; 10-12). In diesem Prozess hat die Pentateuchredaktion frühere Aussagen über Mose überarbeitet bzw. revidiert. Zuerst geschieht dies, indem sie Mose in Dtn 31,2, trotz seines Alters von 120 Jahren als körperlich ungeschwächt beschreibt, und sein Tod wird vom Redaktor im Rekurs auf Gen 6 erklärt. Im zweiten Fall wird die Aussage von Dtn 18,18, ‚Ich werde einen Propheten wie Mose erwecken‘ revidiert, denn Dtn 34,10 proklamiert dessen Einzigartigkeit: ‚Ein Prophet wie Mose ist nicht mehr aufgestanden‘, womit seine absolute Ausnahmestellung in der Geschichte Israels proklamiert wird. Die Redaktion bringt so die Autorität Moses mit der Tora in Übereinstimmung, indem sie zeigt, dass dessen Autorität mit seinem Tod an die vollendete Tora übergeht.

key words

Dtn 34, Mose, Tod, Autorität, Tora, Pentateuchredaktion

투고일: 2025년 05월 11일

심사일: 2025년 05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6월 08일

www.kci.go.kr